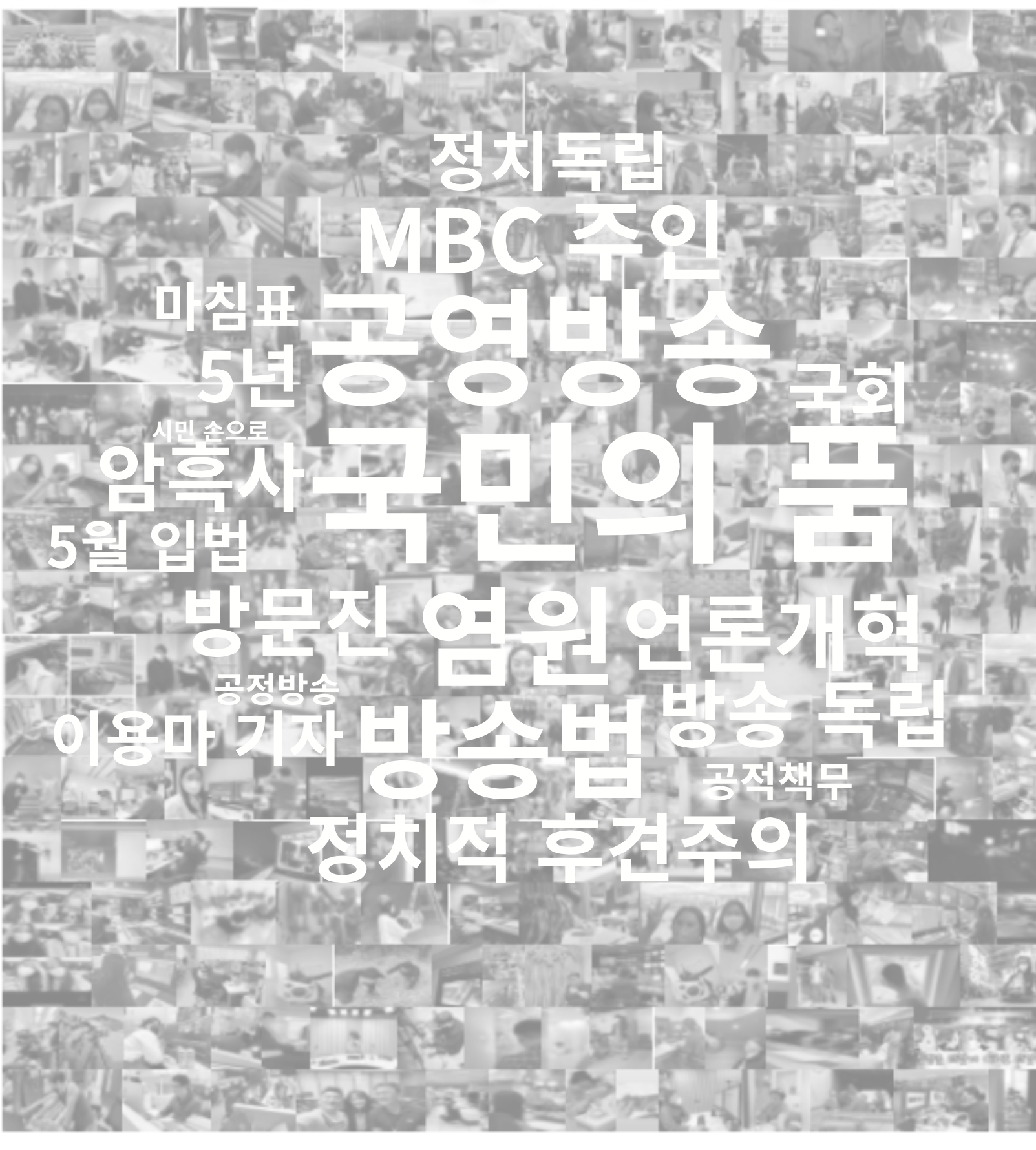


# 문화방송 노보

발행인 최성혁  
편집인 강연섭  
편집 송옥분  
www.mbcunion.or.kr  
2022년 5월 13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 MBC 암흑사, 마침표를 찍자



정치독립

MBC 주인

공영방송

국회

국민의 품

마침표  
5년

시민 손으로

암흑사

5월 입법

방문진 염원 언론개혁

공정방송

이용마 기자

방송법

방송 독립

공적책무

정치적 후견주의

#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국민의 명령이다

무려 30년이다.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 논의를 이제야말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정권의 MBC 장악에 맞서 우리는 2010년 39일 파업, 2012년 170일 파업, 2017년 72일의 파업을 통해 늘 한결같이 외쳐왔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야 한다.

## 지배구조 개선 왜 필요한가?

지배구조는 우리의 일터에서 직급, 직무, 직책 등 모든 관계를 최상위에서 결정하는 권력관계를 뜻한다. 어떤 방송을 할지 어떻게 보도할지는 물론 조직개편, 인사, 징계 등 공영방송 노동자와 경영진의 관계가 지배구조라는 틀 안에서 모두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 세월 공영방송은 제도권 정치의 권력 향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방송법 등은 공영방송(MBC, EBS) 이사진을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관행'으로 여야 비율을 맞춰 이사를 추천하고 방통위가 이를 이행하면서 공영방송은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정권의 방송장악, 낙하산 사장이라는 논란과 갈등만 초래했다. 그리고 이는 1990년대 방송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이 공영방송에 이식되면서 벌써 30년째 반복된 악순환이다.

## 공영방송은 독립해야 한다

언론 탄압이 엄혹하던 시절 독재정권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부르짖던 언론인을 강제 해직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독립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방송법 어디에도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방송법 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방송사를 대표하는 사장을 선출하고, 사장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종속이 벌어졌다. '큰 집에 불려가 조인트 까였다'라는 김재철이 대표적이다.

공영방송은 국가의 소유도, 자본과 같은 사적 소유도 아닌 사회적 소유 형태를 지닌 언론이다. 이런 소유 형태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독립하여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등 제반 권력을 감시 비판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언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적 소유 언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상업적·영리적 목적이 언론 본연의 존재 이유를 압도하는 지금 현실을 고려할 때,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더욱 절실하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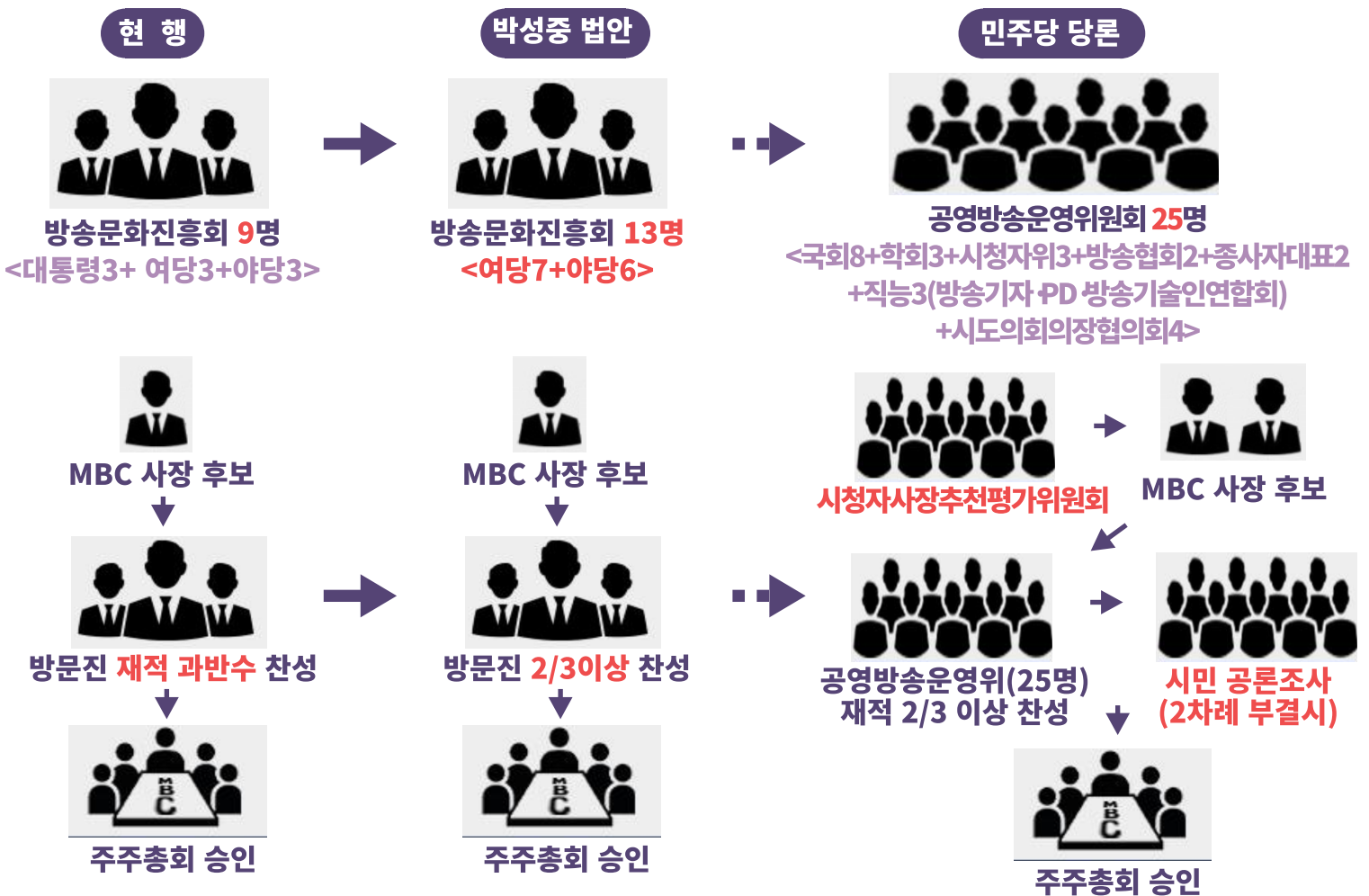
조합은 이미 여러 차례 "공영방송 독립의 핵심은 사장 선임 절차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오히려 시민 참여 대신 '정치적 후견주의를 명문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참여가 아닌 여야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7:6으로 추천"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

- 지난해 11월 KBS '질문하는 기자들 Q' 답변서 -

이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조합은 5년 전 이 같은 방향에 대해 반대를 천명했다.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뽑는 것은 공영방송에 소신을 갖는 사장보다는 정치권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들을 양산하고 무능력한 사장을 뽑을 가능성을 높이고, 이사 자리는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이사회는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변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공영방송을 정치에 영원히 종속시키는 퇴행이다.



**지배구조 개선안, 방송 독립을 위한 출발점**

우리는 이미 지난 2017년 12월과 2020년 1월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4월 28일 민주당 당론은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자는 우리의 원칙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회 추천 이사를 1/3 이하로 축소하고 시청자, 학계, 보도·제작·기술 직능 단체, 지역 의회 추천으로 이사회 범위를 늘린 것은 지금의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추천 관행보다 진일보한 제도다. 조합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제시하고 이행을 점검할 이사회(운영위원회) 구성의 핵심은 대표성과 전문성에 있다고 본다.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에 후보 추천권을 줬지만, 기존처럼 추천 정당의 대리인이 아닌 세대, 연령, 젠더 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학계와 직능 단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포함했다. 학계는 현장 밖에서 외부의 시선으로, 직능 단체는 제작 현장에서 외부 요구의 현실성을 확인해 줄 상호 보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시청자위원회에 운영위원 추천권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가 공영방송 운영에 참여하고 사장 선출에도 목소리를 낼 공간도 확보했다. 더욱이 다양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시청자위원회 추천으로 공영방송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방송 다양성 강화와 건강한 공론장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법부 판결 취지를 반영해 방송사 노사 대표의 추천권도 명문화시켰다.

## 문재인 정부 5년

### '말'뿐인 지배구조 약속

일시	주요 경과
2016.12.16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이용마 기자 병문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
2017.4.24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함 대선 정책협약 체결
2017.8.17	문재인 대통령(취임 100일 기자회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입법" 약속
2020.4.7	민주당-언론노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함 총선 정책협약 체결
2020.11.	민주당 정필모 의원 방송법 등 개정안 발의(사장후보국민추천위 등)
2021.3.	민주당 전해숙 의원 방송법 등 개정안 발의(사장후보시청자평가 반영 등)
2021.4.	언론노조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투쟁 돌입
2021.6.1	언론노조 '국회의 공영방송 신임 이사 추천 불개입' 요구
2021.6.	민주당 송영길 대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2021.7.14	언론노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단일안' 요구,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 항의 접거
2021.9.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정책조정회의) "공영방송 이사과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 확대"
2021.11.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금이 적기"
2022.3.2	민주당-언론노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함 대선 정책협약 체결
2022.4.27	민주당 소속 171명 의원 전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당론 개정안 발의

### 이제 마침표를 찍자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기 주저했던 민주당의 지난 5년, 정권 교체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국민의힘.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30년 넘게 고치지 못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공영방송의 독립과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다 작고한 故 이용마 기자가 생전에 그토록 염원했던 바람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마침표는 남아 있는 우리가 찍을 것이다.

## 공정방송을 위한 보도 부문 '국장 정책설명회'

공정방송과 방송독립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국장 정책설명회가 지난달 열렸다. 조직개편에 따라 독립 조직으로 구성된 디지털 뉴스룸에서 정책설명회가 처음 열렸고, 뉴스룸 국장과 뉴스영상국장의 정책설명회도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



## 보도본부 뉴스룸 박성호 국장 "MBC 뉴스는 공영방송 책무에 충실해야"

MBC 뉴스는 공영방송 책무에 충실한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와 시민 생활을 위해 존재합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와 시민의 자유 판단을 돕고 그들 목소리에 귀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오로지 공익이 최우선입니다. 공영방송이 누구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생각하면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동안 우리 뉴스가 소수자, 약자 목소리 듣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런 기초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에 더해 젠더이슈, 기후변화까지 더 관심받고 접근할 공적 사안이 많습니다.

## 불편부당한 뉴스

MBC 뉴스는 불편부당한 뉴스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공영방송 저널리즘이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으면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실 취재해서 충분한 근거 제시하고 사안을 한 방향으로만 몰아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감시와 비판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잣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비판에 소극적이면 곤란합니다. 편향적이지 않다는 것이 시소 가운데 앉아서 가만히 균형만 잡아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잡다단한 세상사를 양극단으로만 부각 시키지 않고 중간에 여러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100% 완전무결하게 편향되지 않는 것이 가능하느냐, 누구도 실천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민의 가치에 기우는 편향이라면 그런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분명히 해둡니다.

MBC 뉴스는 취재 과정에 정확함과 투명함을 더욱 철저히 추구해야 합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들이, 뉴스와 사실과 주장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저널리즘은 원칙대로 진실 확인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믿을 수 없는지 신중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또한 뉴스의 결과물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 활용된 근거들을 더욱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해서 좋은 저널리즘의 근육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MBC 뉴스는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재미있고 젊은 감각의 뉴스라는 평을 듣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품질 좋은 저널리즘 구현

민주주의와 시민을 위한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실천 방향은 단 하나. 품질 좋은 저널리즘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감시와 비판, 공익적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는 뉴스의 원천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발생, 발굴 이 세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뉴스에 반영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발표 뉴스는 더욱 입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출입처 자료에 단순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발생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책임인지 따지며, 발굴은 발표 발생이 뉴스 뒤덮지 않도록 비판적 질문과 시청자 관점에서 출발해서 그 양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설명 임무에 충실한 뉴스를 지향하겠습니다. 이슈가 발생하면 본질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 건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루하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짚어줘야 공적 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뭐라고 말했다.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언행을 전달하는 텍스트로는 부족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뉴스는 풍부한 맥락과 설명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계속 이뤄왔는데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재는 물론이고 접근하는 관점부터 타 매체와 비슷하지 않은 차별성 있는 뉴스, 최대한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먼저 달려가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현장성 있는 뉴스, 또 하루 이틀 늦을지라도 문제제기와 평가, 비판에 충실한 심층성 있는 뉴스, 중요한 사안을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토리텔링 있는 뉴스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① 취재 과정에서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윤리적 잣대에 대해 늘 고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② 취재 단계와 편집 과정에서 또 마지막 뉴스센터에서 계속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 ③ 영상과 기사를 따로 두고 방송뉴스가 만들어질 수 없는 만큼, 협업을 통해 최고 품질의 공영방송 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 ④ 인제스트에서 아카이브까지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영상자산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며, 공영방송 뉴스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더 안정적인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원을 늘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과정에서의 윤리를 강조하고 더 많은 인력확충을 주장하고 더 나은 장비를 구축하는 이유는 모두 공영방송에 합당한 수준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맥락을 알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뉴스"

## 보도본부 디지털뉴스룸 연보흠 국장

MBC 뉴스에서 디지털 뉴스는 어떤 부분을 차지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주장은 디지털 뉴스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맞는가 바람직한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애매합니다. 여전히 지상파 영향력이나 의미 강조되고 있고, 예전보단 약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디지털 뉴스가 레거시미디어 뉴스를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 사실 애매합니다. 다만 '현실적 제약 아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뭔가'란 걸 좀 더 고민하고, '디지털 뉴스가 어떤 뉴스이다'라는 걸 스스로 찾아가면서. 또 디지털 뉴스가 레거시미디어 뉴스를 대체, 병립하는지 우리 스스로 보여주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냐. 크게 나누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힘주고 있고 우리 경쟁력이 가장 많이 확보된 분야가 유튜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황무지에서 밭 일구듯 해서 굉장히 많은 공이 쌓였고 영역도 확대했습니다. 디지털은 의지만 있으면 여러 콘텐츠 다양하게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청층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활성화된 게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직접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시라, 가공된 정보 아니고 날 것의 정보로 현장을 판단하시라, 유튜브 매체 통해 일반화될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욕심대로라면 정치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 하다못해 벚꽃축제를 라이브로 해본다든지. MBC만이 의미를 두고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유튜브 라이브를 해보고 싶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낮에 들어오는 속보성 뉴스나 핵심적으로 뉴스 가치 있다가거나 필요한 정보 있는 것은 속보성 뉴스 형태로 가공해 처리하는 방송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송된 뉴스를 맥락에 맞춰 재가공하는 것입니다. 방송 뉴스 기사에 담아내는 건 10분의 1도 되지 않고, 10개 찾은 기사 버리지 말고 이를 유튜브로 만들고 메인뉴스와 다른 맥락에서 풍부한 정보 제공 형식으로 뉴스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디지털 뉴스는 보는 방식과 시간대가 다른 만큼 포털에 올라가는 텍스트 뉴스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기자, 전문기자, 특파원의 협조를 받고, 취재 부서와도 상의해서 롱폼 뉴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조회 수만을 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포털에서 잘 나가는 기사 일부는 출처 의심되고, 커뮤니티 돌아다니는 얘기를 쓴 것도 있습니다. 엠빅뉴스나 기획 제작성 콘텐츠. 어려운 조건 속에서 많은 노하우 축적해왔고 어디서든 내로라하는 부분이라고 자타공인 평가받았다 들었고 제가 와서 봐도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경쟁력은 강화하되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전국대의원회 2021년 결산·2022년 예산 승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4월 20일 4차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2021년도 회계 결산 보고 및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단위:원)

일반회계	2021년 예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수입 총계(A)	1,516,217,439	1,506,480,387	1,614,067,221
이월금	265,917,439	265,917,439	363,767,221
조합비	1,250,000,000	1,235,315,249	1,250,000,000
예금이자	300,000	247,699	300,000
기타	-	5,000,000	-
지출 총계(B)	1,249,900,000	1,142,713,166	1,277,600,000
본부운영비	775,400,000	693,363,436	813,100,000
지부운영비	454,500,000	449,349,730	454,500,000
기타(예비비)	20,000,000	-	10,000,000
계=(A)-(B)	266,317,439	363,767,221	336,467,221

특별회계 (임금보전기금)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적립(A)	884,750,331	697,246,455
집행(B)	187,503,876	270,000,000
이월(A-B)	697,246,455	427,546,455

## 노사협의회 지상중계

지난 4월 12일 조합 집행부와 회사 경영진과의 올해 첫 노사협의회가 열렸다. 조합과 회사는 MBC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온 힘을 쏟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콘텐츠 경쟁력 강화는 물론 희망찬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OTT 오리지널 기획 및 제작, 도전이자 기회

올 1분기 경영실적 및 연간 경영계획과 관련해 회사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흑자 달성을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OTT 중심의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OTT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사교양본부에서 기획한 한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 공급을 위해 접촉 중이고, 드라마본부에서도 OTT용 오리지널 기획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OTT 오리지널 기획 및 제작에 관심이 있는 구성원들의 지원이 있을 경우, 인사이동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종료한 뒤 복귀할 수 있는 탄력적 인사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OTT용 제작에 있어서 내부적인 제약보다 관건은 콘텐츠 제작 역량복원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작년부터 시행된 사내벤처 역시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분사하는 등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회사는 사내벤처가 성공과 실패냐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봤다. 특히 제작년 59개 팀, 작년에 29개 팀이 지원하는 등 사내벤처를 통해 구성원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 의미를 두자고 강조했다. 조합은 OTT와 사내벤처 등 혁신투자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로드맵 등을 체계화하고, 현업 조직과의 원활한 인력 운용 문제도 요구했다. 이에 박성제 사장은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문별 정원 인력 구조 특성 고려한 승진 T/O 마련

조합은 6월 정기 직급승진을 앞두고 차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국장 등 직급승진 관련 T/O 산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다. 현재 회사는 각 직급별로 최소근속연수를 적용해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수에 일정 비율을 산정해 승진T/O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연도 입사자들이 대거 몰려있거나, 타 본부로의 전출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본부의 경우 직급승진 T/O가 낮아 승진 적체가 일어나는 역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조합은 이 같은 승진 관리제도는 부문별 정원이나 인력 구조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승진 제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개선 방향을 회사에 요청했다. 회사는 조합의 문제 제기에 본부별 T/O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국장과 부장 직급 비율이 과대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정기승진에 한해 본부별 승진 T/O 비율산정시, 본부별 직급승진

현황을 함께 파악해 필요할 경우 추가 T/O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에따라 부문별로 승진 적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승진 누락이라는 불이익을 봤던 대상자들의 고충이 이번에는 일부분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조합은 기대한다.

## ONE MBC, Mega MBC 흔들임 없이 가자

조합은 ONE MBC, Mega MBC에 대한 회사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회사는 ONE MBC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일부 구성원들이 여전히 “과연 될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으며 그런 의심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진 교체 여부와 별개로 ONE MBC에 대한 방향이 맞다면 현 경영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로드맵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제 사장은 특히 소액주주와 연주소 단일화 등은 지역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본사는 세종 MBC 부지 계약 등 가시적인 진전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조합 홈페이지 대변신~



하루에도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들! 그런데 우리 조합은 뭐해?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조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신 분들도 많습니다. 간간히 나오는 노보는 너무 내용이 많고 어려워 정독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합 홈페이지 주소(<http://mbcunion.or.kr/>)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조합 홈페이지는 조합원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변신시키려 합니다.

### HOW

- ① 조합원 관심도 높여 '신속 접근 용이 잘 읽히도록'
- ② 사진 및 숏 영상, 카드 뉴스 등 구현해 '쉽게 보자'
- ③ 조합원 소식 등 활성화해 실질적인 '광장'으로
- ④ 노보 등 자료도 체계화해 '쉽고 빠르게 검색'

조합은 지난 달 중순부터 홈페이지 부분 개편에 들어갔으며, 전면 개편은 5월 말쯤 완료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故 김용균씨 3주기 '대물림된 노동 현실'



차주혁 조합원  
서울 지부

찬바람을 많이 맞아서인지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전자부품을 조립하던 어머니는 그렇게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3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겼습니다. 발전소 앞에는 추모 조형물도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는 다시 비정규직이 메웠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지금도 일터에선 매일 7명씩 죽어 나가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추모 구호는 3년째 그대로입니다. 웬만해선 예전만큼 잘 울지 않게 됐다던 어머니는 결국 다시 오열했습니다. 아들에게까지 대물림된 '비정규직' 족쇄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故 김용균 3주기.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계속 귀 기울여 달라고, 같이 목소리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 차주혁 조합원-

지역대학 벚꽃엔딩 실체 보고서



이두원 원혜영 한종철 조합원 윤영균 박귀영 최우식 조합원  
부산 지부 대구 지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벚꽃엔딩'은 수도권에서 먼 남쪽부터 대학이 망한다는 것으로, 지극히 수도권 중심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의 실체가 무엇일까 하는, 다소 팩트체크를 하기엔 버겁고 미래의 예측까지 포함돼야 하는 주제를 과감히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한 곳의 운명을 결정짓는 변수는 모두 20개가 넘었고,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지에 대해 연구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한 단계씩 검증해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실체와 예측을 하나의 지도에 담기까지 치열한 토론이 거듭됐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산과 대구 대부분의 캠퍼스를 뛰어다녔고, 대학 붕괴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적나라한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역소멸'의 보고서입니다. 우리의 외침으로 지역의 미래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며, 함께 수상한 동지 여러분들과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이두원 조합원-

웃소매 붉은 끝동



이월연 조합원(대리수상)  
서울 지부

수상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드라마 부문이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고맙습니다. <웃소매 붉은 끝동>의 어떤 점이 이상의 의미를 살리고 있는 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왕에 대한 궁녀의 마음에서 시작해, 그 시대를 움직인 그 작은 마음들이 우리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진 덕분이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정지인 조합원-

잔고는 0이지만 임금될 예정입니다



김경민 이고운 조합원  
부산 지부

매해 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부산을 떠납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청년 유출 문제를 논하는 목소리는 많은데, 정작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다큐멘터를 통해 지역 청년의 목소리가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7개월 동안 14명의 청년에게 월 백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2021년 늦봄부터 겨울까지. 청춘의 일부를 저희에게 공유해 준 현진씨, 지미씨, 동건씨, 연주씨를 비롯한 열네명의 청년들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역 청년의 일상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한 김혜진 작가와 나예리 작가,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이고운 조합원-

# 신임 지부장 소개



경남 신동식  
00년 입사 / 보도

## "조직 공동체 문화 복원"

MBC경남 내부에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의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겠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회사의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단결과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제주 김훈범  
08년 입사 / 편제

## "당당하고 용감하게 행동하자"

제주지부 14대 집행부의 기조는 당당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즐거운 노동조합입니다. 언론이 제역할을 해야 할 때면 오면 피하지 않고 투쟁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그리고 지역MBC지부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조합원들의 역량을 믿고 저희 제주지부 역시 당당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그러면서도 즐거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울산 안병훈  
11년 입사 / 경영

## "누구에게도 심터 같은 조합"

지난 8년 간, 두 번의 대의원, 두 번의 집행부 활동을 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지부장의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데 있어서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전임 지부장님들께서 하셨던 것처럼 노동조합은 그 누구든, 찾아와 마음 편히 실 수 있는 심터가 될 것입니다. 언제든 와주세요. 노동조합은 여러분의 기쁨, 슬픔, 분노 그 모든 것에 공감하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